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 **보도참고자료**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문의: 입지총괄과 김용채 과장(2110-5301), 최원엽 사무관(4741)

산업부, 기업들과 함께 산업단지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다

- 산업부 · 산단공 · 산경련 '산업단지 창조경제 포럼'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)는 한국산업단지공단(산단공),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(산경련)과 함께 각계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'13.8.28(수) **'산업단지 창조경제 포럼'**을 개최

□ 그간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 성장의 심장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, 일자리 매력도 하락, 창의 · 융합산업의 육성 기반 부족 등으로 그 **미래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**되어 왔음

○ 이에 산업부는 **'사람 · 기술 · 기업 · 문화'가 융합하는 공간으로 산업단지를 재창조, 제2의 경제 도약은 물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**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임

□ 특히, 산업단지의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**인력 수급, 기반시설 정비 등 산업단지 문제에 대한 '입주기업체 협의체'의 지속적 관심**과 **자발적 · 적극적인 참여**가 필요하고,

○ 이를 위해서는 **입주기업체 및 전문기관**과 산단의 **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**하고 **미래를 함께 고민**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,

○ 산업부는 **대표적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단체인 '산경련', 전문적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'산단공'**과 함께, 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'산업단지 창조경제 포럼'을 기획 · 개최하게 되었음

□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'창조경제의 거점'으로 재창조하는 **비전을 제시**하면서,

○ 산업단지가 젊은 층과 기업이 기피하는 등 **중대한 도전***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, **산단을 '사람 · 기업 · 기술 · 문화'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중**임을 밝힘**

* 산단 노후화에 따른 공동화 및 기업 영세화 가속화, 안전사고 증가, 문화와 배움의 기회 부족 등

** 신규산단 조성보다는 기존 산단 upgrade를 강화하여, 첨단신산업 집적을 위한 융 · 복합공간 조성, 산단 내 선순환적 인력수급체계 구축, 문화공간 등 조성 추진 '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' 관점의 신규산단 조성

□ 이를 위해 **산업단지의 주인인 기업인**이 산단에 애착을 갖고 산단을 함께 가꾸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주문하면서,

○ '입주기업체 협의체'가 인력 확보, 기반시설 개선 등 산단 전체의 upgrade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가져 줄 것과,

○ 기업 간 자율적 네트워킹 등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가적 노력도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

□ **'산경련' 회원 일동**은 **산업단지를 '창조경제의 거점'으로 발전**시키겠다는 축사에 화답,

○ ① 투자활성화를 통한 국가 · 지역발전에 기여, ② 삶의 질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, ③ 산업단지 공동협력사업에 적극 참여, ④ 산업단지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정부와의 협력을 결의하였음

□ 또한 '결의대회' 이후 진행된 입주기업 대표, 전문가, 정부 관계자 간 토론을 통해, 산단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

○ 김경환 교수(성균관대)는 **현행 산업입지 정책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물리적 기반시설 위주의 개발 정책**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,

- 신산업 등장, 산업 융·복합 등 **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입지 제공**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
○ 이부형 수석연구위원(현대경제연구원)은 산업단지를 지역별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하면서,

- 지역별 특화 업종을 산단에 집적화하고 기업 네트워킹을 위한 공동 R&D를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자 삶의 질을 고려한 기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음

□ 한편, **제4회 산경련의 날을 기념**하여, **지난 1년간 산업단지와 산경련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회원** 29인에게 **표창*** **및 공로상 수여식**도 진행하였음

* 산업부장관 표창, 산단공 이사장 표창, 산경련 협회장 표창

□ 향후에도 산업부는 **지역별 포럼을 개최**, 입주기업체, 전문가는 물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단지를 '창조경제의 거점' '국민 희망의 공간'으로 **재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**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최원엽 사무관 (☎ 02-2110-47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『산업단지 창조경제 거점화』 권역별 전문가 포럼 계획**

□ **권역별 포럼 계획**

일 시	권역	장소	참석자	주 제
8.28 (수) 16:00 ~ 17:20 (80′)	충청권 **연합 행사**	천안상록 호텔 2층상록홀 (천안시)	**250명** (산경연 회원사등240명, 초청귀빈 10명)	-창조경제와 신산업단지 육성전략 -산업단지 역할변화와 창조경제 기반화를 위한 제언
8.30 (금) 14:00 ~ 16:00 (120′)	대경권 (구미)	구미전자정보 기술원 대회의실 (4단지)	**100명** (경협/MC회원사/입주기업체 80명, 초청귀빈 20명)	-구미산단 공동화에 대한 대책 방안 -구미산단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간 연계·활성화 방안
9.3 (화) 14:00 ~ 16:00 (120′)	동남권 (창원)	인터내션널호텔 (경남TP대회의실)	**100명** (경협/MC회원사/입주기업체 80명, 초청귀빈 20명)	-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 -청년인력 일자리 창출방안
9.10 (화) 14:00 ~ 16:00 (120′)	호남권(광주)	본부 대회의실	**80명** (경협/MC회원사/입주기업체 70명, 초청귀빈 10명)	-산업과 문화의 접목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제고방안 -산·학·연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광주첨단단지 활성화방안
미정 9월중 17:00 ~ 18:30 (90′)	수도권 (서울)	구로호텔 (구로구)	**120명** (경협/MC회원사/입주기업체 100명, 초청귀빈 20명)	-창조경제를 위한 서울산단 발전방안 -2·3단지 종합발전비전